

5당 대표 회동...3野, 선거제 개편 촉구

이해찬, '유치원3법' 처리 촉구...김병준, 선거제 구체적 언급 안해
 손학규 "의원정수 조정 검토없이 반대하는 건 연동형 부정하는 것"
 정동영 "무작위로 300명 시민위원단으로 선거제 개혁안 만들자"
 이정미 "연동형 비례제로 다당제 안정화되면 국민 이익도 가속화"

야 3당 대표는 7일 문화상 국회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인 '초월회'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이행을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올해에 많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장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유치원 3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연말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3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유치원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남북관계가 보다 더 진전돼서 한반도 평화와 오고 비핵화가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있을 예정인데 남북미 그리고 종전협약 당사자인 중국까지 네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 평화체제 만드는 중요한 해가 되도록 5당 대표들도 함께 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장에서 열린 문화상 국회의장 초청,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회담을 나누고 있다.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난 번 의정에서 5당 대표와 함께 미국 방문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빨리 성사돼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잘 전달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을 감안해 "선거가 없으니 제도 개혁이나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것 바꾸는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서로 간에 이런 저런 협연에 대해 이견 없고,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이 토론하고 의장 중심으로 얘기해서 많은 것이 국회 내에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것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저희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경제에 대해서 이런 편향적인 경제정책을 걸어서 시장 위주로 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세금 깎아주고 카드 수수료 인하해준다는데 그런 것보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열려 평화 경제의 막힌 길을 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기 보다는 여유를 갖고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이뤄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9년이 선거제 개혁의 적기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진정성을 보이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언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느냐"면서 "정개특위에서 3주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다. 연동형 세 글자만 (합의문에) 들어가면 의석 늘리고 안 늘리고는 부수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생신가계를 고요이한테 지키라고 하면 온전하지 않듯이 국회에 맡기니까 못 만드는 것"이라며 "무작위 추출로 300명의 시민위원단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했어서 시민 집단 지성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고, 그 안을 대통령이 발의해 국회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이 늘어나면 특권을 누린다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화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대 양당의 국회 제도는 되는 일은 없이 안 되는 일만 골몰하는 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초월회 정신이 국회 안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있어야 하고, 집권 정부와 국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문화상 의장은 5당 대표들에게 "2019년 새해는 많은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이 모두의 중대 분수령이 되는 한 해라 보고 모두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에게 민족의 대도약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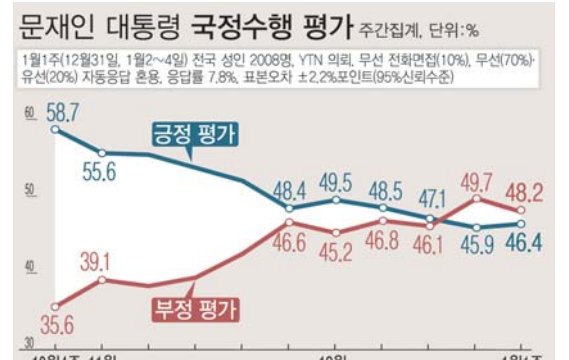
김민호 서울취재본부장

문대통령 지지율 46.4%...전주비 0.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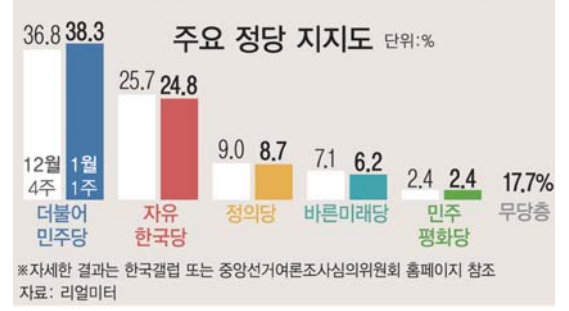
민주 38.3% 한국 24.8% 정의 8.7% 바른 6.2% 평화 2.4% 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0.5%p 오른 46.4%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공개한 1월1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7.8%)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4%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5%p 내린 48.2%(매우 잘못한 29.3%, 잘못한 18.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지난주 대비 1%p 증가한 5.4%를 기록했다.



다만 '정의대의 국제발행 입려와 민간기업 인사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신재민 논란이 확산했던 주 후반 3일과 4일에는 45.3%(부정평가 49.9%), 44.8%(부정평가 49.5%)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충청권(▼7.3%p, 50.3%→43.0%, 부정평가 48.1%)과 부산·울산·경남(▼4.2%p, 38.1%→33.9%, 부정평가 59.6%), 20대(▼7.4%p, 50.8%→43.4%, 부정평가 46.2%), 화북(▼7.4%p, 47.9%→40.5%, 부정평가 46.3%)과 주부(▼5.0%p, 43.1%→38.1%, 부정평가 55.6%), 진보층

(▼5.6%p, 74.3%→68.7%, 부정평가 27.6%)에서 하락했다.

반면 경기·인천(▲4.1%p, 43.0%→47.1%, 부정평가 48.1%)과 서울(▲2.9%p, 49.9%→52.8%, 부정평가 43.5%), 호남(▲3.4%p, 63.0%→66.4%, 부정평가 29.4%), 30대(▲6.2%p, 52.9%→59.1%, 부정평가 37.9%)와 40대(▲1.5%p, 57.0%→58.5%, 부정평가 38.6%), 50대(▲1.1%p, 39.1%→40.2%, 부정평가 55.1%)에서 상승했다.

노동자(▲8.2%p, 41.3%→49.5%, 부정평가 46.8%)과 사무직(▲2.3%p, 56.7%→59.0%, 부정평가 37.5%), 자영업(▲1.8%p, 39.0%→40.8%, 부정평가 55.2%), 중도층(▲1.5%p, 42.7%→44.2%, 부정평가 50.8%)에서도 올랐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8%p 오른 38.3%를 기록했다. 뒤이어 자유한국당(24.8%), 정의당(8.7%), 바른미래당(6.2%), 민주평화당(2.4%) 순이었다.

한국당은 0.9%p 내렸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0.3%p와 0.9%p 내렸다. 평화당은 전주와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유시민 "차기 대선 불출마...무거운 책임 안 맡고 싶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거론되는 차기 대선 출마 등 정계 진출설을 전면 부인했다.

유 이사장은 7일 오전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일일레오' 코너 중 하나인 '고칠레오'에서 차기 대권 유력주자로 떠오른 것에 대

한 질문에 "십여 년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좀 곤혹스럽다"며 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대통령 자리란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권력이다. 저는 그렇게 무거운 책임

을 안 맡고 싶다"며 "(노무현 재단 이사장) 취임할 때 (정계 복귀)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치인 말은 못 믿는다"고 반응했다. 거기

에 일일레오를 한다고 하니 또 그럴 거 같아서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치인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제가 (정계복귀를) 안할 건데 지구 거론되고 일부 여론조사에도 지구 들어가면..."이라며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는 정치할 사람 중에 골라야 하는데 하지도 않을 사람을 넣으면 일정한 여론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